

섬김: 우리의 사명

| | |
|---------|---|
| 성 경 본 문 | 마태복음 25:31~46 |
| 요 절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40절). |
| 찬 송 | 95장(통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310장(통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 이 과의 목표 | 우리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을 일상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



I. 생각하기

1.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II. 생각 넓히기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고 밤을 지새우며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야 자기가 생각했던 시험 범위가 착오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에는 이러한 허망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과,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상치 못한 때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주인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했다가 부여받은 달란트까지 빼앗긴 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았다가 영벌을 받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임금이 나타내는 심판주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갈 자들과 영벌에 들어갈 자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구분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1. 의인들에게는 섬김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임금의 판결과 선포를 듣고 의아해하며 놀랍니다. 그 이유는 임금께서 그들을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결을 잘 이해할 수 없던 오른편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어서 임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35-36절).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기에 임금이 다른 사람들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37-39절).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칭찬하느냐며 임금에게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임금은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40절).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혹은 뺏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임금의 칭찬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인근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의 성도가 그를 전도하기 위해 그의 가게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던 주인은 그 성도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가게 주인을 의아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과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흠이 있는 것,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서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도 그 성도 처럼 작은 것, 흠이 있는 것, 팔기 곤란한 것들만 골라서 사갔습니다.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 다니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음 주일부터 가게 주인은 자기 발로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일상에서의 이러한 소소한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2. 불의한 자들에게는 섬김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판결을 내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임금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41절). 그리고는 이렇게 판결하신 이유에 대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주릴 때에 그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옷도 주지 않았고, 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오른편에 있던 자들과 같이 임금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이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항의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45절). 항의하던 사람들의 말에서 진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데요. 그런줄 알았다면 시간이 문제이겠습니까? 돈이 문제이겠습니까? 자존심이 문제이겠습니까? 감정이 문제이겠습니까? 대상이 문제이겠습니까?” 이러한 항의로 인해, 임금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임금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임금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임금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일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42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우리에게 선을 갚아줄 수 없어 보이는 자들이 목말라 할 때에 그들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마땅한 일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부자연스럽습니다.

3.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풍요로운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시선은 누구 혹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사명이며, 깨달아지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고후 3:3 참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는 정확한 주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전달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즉 낮은 곳, 작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고후 2:15 참조). 향기는 존재 자체로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 의의 향기, 평강의 향기, 희락의 향기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바라보고 계신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III. 생각살기

1. 주변에 당신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봅시다.
2.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